

0805(금) 이사야 63-66장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사야 통독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오경부터 지혜서까지를 통독하며 인간의 유한함과 죄성, 삶의 문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하여 <여호와 경외>와 회개가 강조되고 있지만, 역사 속에 되풀이 된 이스라엘의 실패로 보건데, 인간에 대한 낙관은 불가해 보입니다(64:5-7).

이에, 구약의 마지막에 자리 잡은 예언서들은 전혀 새로운 소망과 비전의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 첫 책인 이사야는 <주의 영>이 임한 <여호와의 종>들이 정의를 베풀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비전을 제시합니다. 마침내 드러날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제시합니다(65:17-25). <여호와의 종>은 참 이스라엘인 개인과 공동체인 동시에 메시아, 그리스도의 출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초대교회가 ‘제5복음서’라 여겼을 정도로 시편과 함께 신약에 많이 인용된 구약 본문입니다. 이사야에 기록된 여호와의 종, 사역, 새 일에 관한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1:3, 7:14, 9:1, 6, 11:1, 22:22, 35:5-6, 45:1, 53:4-5, 55:1, 56:7, 60:6, 61:1 외)

이러한 맥락에서 예언서는 구약의 결론이며 신약의 예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자들이 기대한 회복과 비전의 답이며, 김근주, 특강 이사야 예언서는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을 바로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부분인 예언서들을 통독하며 그들이 간절히 갈망했던 회복, 비전들을 발견해 보십시오. 나의 삶 속에 간구해야 할 회복과 비전 또한 발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얼마나 구체적으로 성취되었는지, 직접 읽고 확인하며 감격하는 복된 통독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품고 기도합니까?
통독하며 회복해야 할 것, 성취해야 할 구체적인 비전을 발견하고 있습니까?